

음악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규칙 마련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iderations in Rules for Authorized Access points of Music Work

이 미 화(Mihwa Lee)**

<목 차>

I. 서론	3. 표현형 전거형접근점
II. 전거형접근점 구성 및 기능	IV. 음악 저작 전거형접근점 규칙 마련시 고려사항
1. 저작 및 표현형 속성	1. 음악 저작 전거형접근점 방향
2. 전거형접근점 구성	2. 음악 저작 유형별 전거형접근점 구성
3. 전거형접근점 기능	3. 저작 및 표현형의 속성 기술의 통일성
III. RDA 음악 저작 전거형접근점	V. 결론
1. 음악 저작 및 표현형 속성	
2. 음악 저작 유형별 전거형접근점 구성	

초 록

KCR4에서 음악 저작의 집중을 위한 전거형접근점 규칙 제정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FRBR, LRM, ICP 2016, RDA, BIBFRAME에서 전거형접근점의 방향을 조사하고, RDA에서 음악 저작 및 표현형 속성과 전거형접근점 기술 규칙과 VIAF 사례를 분석하였다. 첫째, VIAF와 같은 에그리케이터형의 전거형접근점 적용 방식을 제시하고, 원표제를 우선표제로 삼되, 원표제가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언어나 문자를 선택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음악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은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과 저작의 우선표제로 구성하되, 원작곡가의 책임이 크지 않은 경우는 개작자 등으로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한다. 또한, 국내 전통음악도 작곡자의 책임성을 중심으로 저작유형별 전거형접근점 구성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저작 및 표현형 속성을 일관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작곡유형, 연주매체, 음조 등에서 통제어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음악저작의 저작 및 표현형 집중을 위한 전거형접근점 기술 규칙마련을 위한 기초를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음악 분야의 이용자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기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음악저작, 한국 음악, 서지레코드의 기능적 요건, 자원의 기술과 접근, 국제목록원칙, 비브프레임, 서지프레임, 도서관관찰모형, 저작, 표현형, 전거형접근점, 우선접근점, 우선표제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onsiderations in the rules for authorized access points for collocation of music work by figuring out the directions of authorized access points in FRBR, LRM, ICP 2016, RDA, and BIBFRAME, and by analyzing RDA rules for attributes and authorized access points of music works and expression and VIAF examples. First, an aggregated authorized access points were suggested as the direction of authorized access points, and original title may be selected as preferred title and the authorized access point may be based on forms in one of the languages suited to the users, if the original title is not normally suited. Second, music works's authorized access points is consisted of composer authorized access point and preferred title, and of adapter's authorized access point and preferred title in case of lacks of responsibility in composer. Also, the authorized access poi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ork must be reviewed according to work types considering the responsibility of composer. Third, the controlled vocabularies for name of music type, medium of performance, and key could be considered for describing the attributes of work and expression. This study would be the foundation study for the authorized access point of music work, and additional research should be completed through surveying music user's need.

Keywords: Music work, Korea music, FRBR, RDA, ICP, BIBFRAME. LRM, Work, Expression, Authorized access point, Preferred access point, Preferred title

* 본 연구는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세미나 발표(제55회 전국도서관대회, 정선, 2018)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임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부교수(leemh@kongju.ac.kr)

•논문접수: 2018년 11월 16일 •최초심사: 2018년 11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12월 13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147-166, 2018. [http://dx.doi.org/10.16981/kliiss.49.201812.147]

I. 서론

음악저작은 지속적으로 연주, 변주 및 개작이 되며, 다양한 표제로 발행되고 있어 문학과 마찬가지로 자료의 집중이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파헬벨의 캐논은 캐논 변주곡, 파헬벨의 캐논 백파이프버전 등 다양한 표제와 버전으로 자료가 발행되고 있어 개별적인 자료 식별도 중요하지만 이를 모두 검색할 수 있는 집중이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음악 저작의 저작 및 표현형 집중을 위해서는 우선표제, 작곡유형, 연주매체, 음조 등을 바탕으로 한 전거형접근점을 일관되게 기술할 수 있는 내용규칙인 목록규칙이 요구된다.

RDA에서는 전거형접근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음악 저작의 저작 및 표현형의 속성 기술과 전거형접근점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음악 저작의 저작 속성에는 우선표제, 연주매체, 숫자표시, 음조, 기타 식별특성이 있고, 가사/대본/텍스트 등이 있는 음악, 안무동작을 위한 음악, 카덴차, 부수음악 등 음악 저작 유형별 전거형접근점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KCR4 악보와 녹음자료에서 음악 저작의 구현형 기술에 대한 규칙은 제시되고 있으나, 전거형접근점 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KCR4에서는 전거형접근점에 대한 규칙을 제공하는 대신 검색은 연결기법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명확한 연결기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음악 저작의 집중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도서관에서 음악 저작의 집중을 위해 자관에 맞게 음악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기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을 기술하지 않아 저작 집중이 용이하지 않다. 국내에서 음악자료의 FRBR 집중을 위해 통일된 저록작성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김현희, 유영준, 박서은 2007), 전통음악 녹음자료의 통일표제 기술 방안을 마련한 연구(손정표 2007), 전통음악의 FRBR 서지적 관계 특성과 기술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성숙, 이현주 2013)에서 음악 저작 전거형접근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KCR4에서 음악 저작의 집중을 위한 전거형접근점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FRBR, LRM, ICP 2016, RDA, BIBFRAME에서 음악 저작 및 표현형 속성과 전거형접근점 기술 규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KCR4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문헌연구에서는 한국목록위원회에서 KCR4 개정시 참조하는 RDA 음악저작의 저작 및 표현형의 속성 및 전거형접근점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사례연구에서는 VIAF의 저작 기술 사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목록규칙에서 음악저작의 저작 및 표현형 집중을 위한 전거형접근점 기술 규칙 마련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전거형접근점 구성 및 기능

1. 저작 및 표현형 속성

저작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하는 저작의 속성은 저작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요소로 저작의 속성에 해당하는 값(value)을 기반으로 동일 저작을 모으고, 서로 다른 저작을 구분한다. KCR4에는 저작 및 음악 저작의 속성에 해당하는 요소와 전거형접근점 기술 규칙이 없으나 RDA는 저작 뿐만 아니라 음악저작의 저작 및 표현형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단행본으로 대표되는 텍스트 저작의 속성은 우선표제(FRBR 4.2.1, RDA 6.2), 형식(FRBR 4.2.2, RDA 6.3), 일자(FRBR 4.2.3, RDA 6.4), 원생산지(RDA 6.5), 기타식별특성(FRBR 4.2.4, RDA 6.6), 저작내력(FRBR 4.2.7, RDA 6.7), 식별기호(RDA 6.8)이며, 이중 우선표제와 식별기호는 핵심요소이다. 표현형의 속성은 내용유형(FRBR 4.3.2, RDA 6.9), 일자(FRBR 4.3.3, RDA 6.10), 언어(FRBR 4.3.4, RDA 6.11),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FRBR 4.3.5, RDA 6.12), 표현형의 식별자(RDA 6.13)이다.

음악 저작의 속성은 우선표제(RDA 6.14), 연주매체(FRBR 4.2.8, RDA 6.15), 숫자표시(FRBR 4.2.9, RDA 6.16), 음조(FRBR 4.2.10, RDA 6.17)이고, 음악 저작의 표현형을 기술하기 위해 기타 식별특성(FRBR 4.3.16, 4.3.17, RDA 6.18)이 있다.

FRBR과 RDA에서 음악 저작의 속성은 거의 일치한다. 다만, FRBR에서는 별도의 음악저작의 우선표제가 없지만 RDA에서는 음악 저작의 우선표제를 별도의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2. 전거형접근점 구성

텍스트 자료를 중심으로 할 때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은 해당하는 경우 <저작에 책임이 있는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로 구성된다.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이 동일한 경우 저작을 나타내는 접근점에 저작의 형식, 저작 일자, 저작의 원생산지, 기타 식별특성 중에서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식별 요소를 부가한다.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기반으로 내용유형, 표현형의 언어 등과 같은 표현형을 식별하는 요소를 추가한다(RDA 5.5).

RDA 6.27.1.2-6.27.1.8에서는 저작유형별로 전거형접근점 규정을 마련하였다. 1인 저작의 저작은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 2인 이상의 개인이나 가족, 단체가 공동으로 저술한 공동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은 <주된 책임을 갖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전거형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이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4호)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가 기존 저작의 성격과 내용을 상당히 변경한 개작이나 개정에 책임이 있는 경우 <개작이나 개정에 책임이 있는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접근점 + 개작이나 개정의 우선표제>로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 저작이 단순히 기존 저작의 하나의 판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그 저작의 표현형으로 취급하여 기존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그대로 사용한다.

저작이 기존 저작에 주석, 해제, 삽화내용 등이 추가되어 구성되고 주석 등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저작으로 나타난 경우 <주석 등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전거형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로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 반면, 저작이 단순히 기존 저작의 하나의 판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그 저작의 표현형으로 취급하여 기존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접근점을 사용한다. 편집물은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편집물, 여러 개인이나 가족, 단체에 의한 편집물 여부에 따라 전거형접근점의 구성이 달라진다(이미화 2016, 82-86).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이 창작되면 번역, 개작 등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은 저작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음악 저작도 작곡된 후 편곡 등과 같이 변화가 많아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이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식별 가능한 우선표제를 기술한 음악 저작도 있지만, 소나타, 콘체르토 등과 같이 작곡유형명을 사용해 식별이 어려운 우선표제가 있고, 편집물의 경우 다양한 작곡가의 음악이 결합된 저작도 있으며, 변주, 편곡 등 다양한 변형이 발생하고 있어 음악 저작의 집중을 위해서 전거형접근점 기술 규칙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

3. 전거형접근점 기능

전거형접근점은 저작을 구현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동일 저작내의 구현형 간을 식별하며, 동일한 표제를 가진 다른 저작을 구별하고, 한 저작내 여러 표현형으로 구현된 자원을 계층적으로 디스플레이하며, 관련 저작과 관련 표현형의 관계를 기술하는 기능을 한다(JSC for Development of RDA 2014). 이러한 측면에서 전거형접근점은 저작, 표현형을 식별하여 집중하는 검색의 기능과 저작에서 표현형으로의 계층적 디스플레이와 저작과 저작, 표현형과 표현형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대표적인 문자열이라고 할 수 있고, 저작 간의 식별 및 집중을 위해 전거형접근점은 통일된 방식으로 일관성있게 작성되어야 한다(이미화, 노지현 2016, 59). 검색의 측면에서만 보면 전거형접근점은 식별기호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디스플레이 및 관계 기술의 기반이 되는 등 여러 역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이 인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문자열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RBR, LRM(도서관 참조모형, 이하 LRM), ICP 2016(국제목록원칙2016), RDA, BIBFRAME에서 전거형접근점의 기술 및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FRBR에서 저작은 저작의 표제와 저작의 형식 등의 저작 속성으로, 표현형은 표현형의 표제, 언어 등의 표현형 속성을

통해 식별되고, 이러한 속성으로 구성된 전거형접근점이 저작 및 표현형의 식별과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IFLA 1998).

FRBR을 대체한 LRM에서 레는 물리적인 사물과 개념을 의미하고, 레는 노멘으로 명명되어 모든 노멘은 레의 기반이 된다. 노멘은 개체를 인식하는 표시 즉 이름으로 문자나 기호의 배열로 표현된다. 개체의 여러 이름은 노멘이며, 이러한 노멘에는 문자열, 식별자가 포함되고, URI도 특정유형의 노멘으로 볼 수 있다(Riva, Boeuf & Žumer 2017, 31-32). 검색은 식별자로도 가능하지만 디스플레이를 위해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노멘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문자열 중 해당 국가의 언어에 적합한 하나의 문자열을 선정해 전거형접근점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사랑, love, ラブ, 愛情 등과 같이 다양한 문자열 노멘으로 표시되며, 이중 해당 국가의 언어 관행에 따라 하나를 전거형접근점으로 선정한다.

ICP 2016에서는 전거형접근점의 언어와 문자, 우선이름 및 우선표제의 선정, 형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전거형접근점은 원문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저작의 구현형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목록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원문의 언어나 문자는 전거형이나 이형 중 하나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전거형접근점으로 채택된 우선이름은 그 개체를 일관된 방식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구현형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이름이거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목록이용자에게 적합하여 널리 인정된 이름이다. 특히,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전거형접근점 선정시에도 저작 및 표현형 전거형접근점의 기반이 되는 하나의 표제를 채택한다(IFLA Cataloguing Section and IFLA Meetings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2016).

RDA에서는 전거형접근점의 기능과 함께 저작 및 표현형의 속성을 정의하고, 텍스트, 음악 저작, 법률저작, 종교저작 등의 저작유형별 전거형접근점 기술규칙을 제시하였다. 도태현(2012, 35)은 저작 및 표현형 전거형접근점을 통해 저작과 표현형의 집중이 가능하며, 특히 RDA의 전거형접근점은 AACR2의 저자, 통일표제 기본표목의 원칙과 거의 일치하고, 특수한 저작과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 규정으로 AACR2 25장의 통일표제 규정은 RDA와 거의 일치한다고 분석하였다.

BIBFRAME에서는 링크드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식별자를 통해 자료를 연계하지만 디스플레이를 위해 전거형접근점을 사용하고 있다. 저작의 집중 및 디스플레이를 위해 전거형접근점의 기술이 필요한 저작의 경우 해당 전거형접근점을 기술할 수 있도록 우선표제를 위해 bf:Work, rdfs:label, 우선 이름을 위해 bf:Agent, bf:Person, rdfs:label을 사용한다. <그림 1>과 같이 240 통일표제는 BIBFRAME 저작의 표제로 bf:Work, rdfs:label에 기술되며, 100 저자명은 저자의 우선 이름으로 bf:Agent, bf:Person, rdfs:label에 기술되어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FRBR, LRM, ICP 2016, RDA, BIBFRAME에서 전거형접근점이 검색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므로, 해당 국가에서는 자국 이용자의 언어나 문자에 맞게 전거형접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4호)

근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목록이용자에게 적합하게 전거형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음악 저작과 같이 저작 및 표현형의 집중이 필요한 자원에서는 관련된 규칙이 더욱 요구된다.



〈그림 1〉 BIBFRAME에서 저작 전거형접근점 기술 사례

※ 출처: BIBFRAME Comparison Tool(<http://id.loc.gov/tools/bibframe/compare-id/full-ttl>)

Ⅲ. RDA 음악 저작 전거형접근점

1. 음악 저작 및 표현형 속성

가. 저작 속성

1) 우선표제

우선표제는 음악저작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 전거형접근점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저작 창작 당시의 언어로 된 작곡가의 원표제를 음악 저작의 우선표제로 선정(RDA 6.14.2.3)하도록 규정하였다.

우선표제는 저작이 구현된 자원이나 참고정보원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언어로 된 표제를 선

택하고, 다만, 원표제가 해당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언어나 문자인 경우 목록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국제목록원칙 2016과도 부합한다.

Sonata, Concerto 등과 같이 한 가지 작곡유형으로만 우선표제가 구성되는 경우 데이터 작성기관이 우선하는 언어로 작곡유형을 기술한다. 즉 그 언어와 같은 계통의 형식이거나 명칭이 그 언어에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정된 우선표제의 언어로 작곡유형을 기록(RDA 6.14.2.5)하도록 규정하였다.

서양 음악의 작곡유형은 거의 해당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우선하는 언어를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전통음악과 관련된 작곡유형의 통제어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편집물은 그 편집물을 구현한 자원이나 참고자료에서 사용된 표제로 알려진 경우 이를 우선표제로 사용한다. 작곡가의 전체 음악작품들로 구성된 전집인 경우 종합표제로 “Works”를 기술하고(RDA 6.14.2.8.2), 다양한 연주매체를 위한 작곡가의 모든 저작으로 구성된 경우, 하나의 특정 연주매체를 위한 작곡가의 모든 저작으로 구성된 경우, 하나의 유형으로 된 작곡가의 모든 저작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Chamber music, Piano music, Orchestra music, piano, Concerto, opera 등 해당하는 관용적인 종합표제를 기술한다(RDA 6.14.2.8.3-6.14.2.8.5). 불완전한 편집물인 경우 RDA 6.14.2.8.6에 따라 편집물 내의 각 저작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기술하거나 별법으로 Selections(선집)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용적 종합표제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목록이용자에게 적합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국내 전통음악에서도 필요한 종합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연주매체, 숫자, 음조 기술

우선표제 이외의 연주매체, 숫자, 음조의 속성은 동일 표제를 가진 상이한 저작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핵심요소로 기술하며, 저작 간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는 기술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주매체

RDA 6.15.1에 따라 연주매체에 해당하는 악기명과 해당하는 악기 수를 “violins (5)”와 같이 기술한다. 독립적인 요소로 전거레코드의 표시기호 382에 기술할 수 있고, 접근점의 일부로도 기술할 수 있다(<표 1> 참조).

악기명은 데이터 작성기관이 우선하는 언어의 용어를 사용하고, 하나의 악기에 양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의 개수도 “piano, 1 hand”와 같이 기술한다. 악기의 식별을 위해서 악기의 음고와 음역을 “alto horn”과 같이 기술한다. 대체 악기명, 한 사람이 주된 악기 이외에 다른 보조 악기를 같이 연주하는 형태인 더블링 악기명도 기록할 수 있다. 연주자의 팔과

다리, 북채 등으로 두드리고 때리거나 흔드는 행위로 음을 내는 퍼커션인 경우 “percussion”을 기술하고 연주자가 다수이면 연주자수를 기록한다.

독주용 반주 앙상블의 경우 해당 악기와 ensemble을 “piano ensemble”과 같이 기술한다. 관현악, 현악의 기악곡인 경우는 orchestra, “string orchestra” 등으로 기술한다. 하나 이상의 솔로 악기와 반주의 경우 솔로 악기명과 반주 앙상블을 기술한다. 성악의 경우 해당하는 독창 유형을 기술하고, 합창인 경우 합창의 유형을 기술한다.

연주매체가 지정되지 않고 하나의 악기군, 성악군, 종합용어만 표시한 경우 해당 용어를 기술한다. 악기나 성악의 음역 또는 일반 유형만 표시한 경우 음역이나 유형을, 일부 파트보만 표시하고 다른 파트보가 미지정된 경우 표시된 파트보와 unspecified를, 연주매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unspecified로 기술한다.

연주매체는 악기명 및 악기군, 성악군을 기록해야 하는데 데이터 작성기관이 우선하는 언어의 용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악기명과 관련된 체계적인 용어를 마련해야 한다. 서양음악에 대한 연주매체는 데이터 작성기관이 우선하는 언어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며, 국내 전통음악의 연주매체를 위해서는 통제어휘를 작성해야 한다.

<표 1> 연주매체, 숫자, 음조, 기타식별특성 기술 사례

속성	MARC 전거레코드 기술 사례	비고
연주매체	Widor, Charles Marie, 1844-1937. Symphonies, organ , op. 42, n.1	
	100 ▼aWidor, Charles Marie, ▼d1844-1937. ▼tSymphonies, ▼m organ 382 ▼a organ	전거형접근점의 일부로 기술 독립적으로 기술
숫자표시	Peeters, Flor, 1903-1986. Chorale preludes, op. 69	
	100 ▼Peeters, Flor, ▼d1903-1986. ▼tChorale preludes, ▼nop. 69 383 ▼a op. 69	전거형접근점의 일부로 기술 독립적으로 기술
음조	Poulenc, Francis, 1899-1963. Mass, G major	
	100 ▼Poulenc, Francis, ▼d1899-1963. ▼tMass, ▼r G major 384 ▼a G major	전거형접근점의 일부로 기술 독립적으로 기술
기타 식별특성 (표현형)	John, Elton. Candle in the wind: arranged	
	100 ▼aJohn, Elton. ▼tCandle in the wind: ▼o arranged 381 ▼a arranged	전거형접근점의 일부로 기술 독립적으로 기술

※ 출처: Kincy & Layne(2014) 및 VIAF 예시를 중심으로 작성

(2) 숫자표시

음악저작의 숫자표시는 작곡가나 발행자, 학자가 음악저작에 부여한 일련번호, 작품번호, 주제별 색인번호 등을 기술한다(RDA 6.16.1). 독립적인 요소로 전거레코드의 383에 기술할 수 있고, 접근점의 일부로도 기술할 수 있다(<표 1> 참조).

(3) 음조

음조는 음의 중심이나 기본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음이름과 음계를 기술한다(RDA 6.17.1). 독립적인 요소로 전거레코드의 표시기호 384에 기술할 수 있고, 접근점의 일부로도 기술할 수 있다(<표 1> 참조).

음조는 데이터 작성기관이 우선하는 언어의 용어를 사용하고, 국내 전통음악의 음조 기술을 위해 통제어휘의 작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표현형 속성

동일 저작의 상이한 표현형 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은 핵심 요소이다. 하나의 연주매체를 위한 음악이 편곡, 악곡 개작, 버전, 세팅 등의 다른 연주매체로 제작되거나 혹은 기존 음악저작의 간략 버전인 경우 arranged로 기술한다. 대중음악의 경우는 성악곡에서 기악곡으로, 기악곡에서 성악곡으로 작성된 경우에 arranged를 기술한다. 소묘곡은 sketches로, 성악보나 합창보는 vocal score, chorus score로 기술한다(RDA 6.18.1). 표현형 속성은 독립적인 요소로 전거레코드의 표시기호 381에 기술할 수 있고, 접근점의 일부로도 기술할 수 있다(<표 1> 참조).

2. 음악 저작 유형별 전거형접근점 구성

음악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은 저작 유형에 따라 우선표제만으로 구성되거나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과 저작의 우선표제로 구성된다. 기존 저작의 작곡집이나 발췌곡집 등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로 구성된다.

작곡유형만으로 구성된 우선표제는 식별성이 없어 연주매체, 숫자표시(일련번호 혹은 작품번호), 음조를 추가하되, 연주매체, 숫자표시, 음조가 불충분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작곡완성연도, 원본의 발행연도, 작곡한 장소나 첫 번째 발행자명을 순서에 따라 추가한다.

<음악저작의 전거형접근점 보기>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 + 우선표제 + 연주매체 + 숫자표시 + 음조 + 추가 기술사항(작곡완성연도 + 원본의 발행연도 + 작곡한 장소 + 첫 번째 발행자명)				
예시 : <u>Enesco, Georges, 1881-1955. Sonatas, violin, piano, no. 2, op. 6, F minor</u>				
작곡자	우선표제(작곡유형)	연주매체	숫자표시	음조

식별성 있는 우선표제이지만 접근점이 구별이 되지 않는 우선표제는 연주매체, 숫자표시, 음조, 작곡완성연도, 원본의 발행연도, 작곡한 장소, 첫 번째 발행자명을 추가한다. 연주매체

에는 성부, 건반악기, 악보 순서에 따른 다른 악기, 통주저음이 포함된다. 솔로악기와 반주 앙상블의 경우 솔로악기 다음에 반주 앙상블 악기를 기술한다. 단, 예외적으로 표제에 연주매체가 암시된 경우, 여러 연주매체를 위한 작품집인 경우에는 연주매체를 추가하지 않는다.

가. 가사, 대본, 텍스트 등이 있는 음악저작

단어가 포함된 음악저작의 경우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로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한다(RDA 6.28.1.2). 대부분의 언어가 포함된 음악 저작의 경우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을 바탕으로 한다(<표 2> 참조).

나. 혼성곡, 발라드 오페라

혼성곡, 발라드 오페라 등의 음악은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다양하게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한다(<표 2> 참조). 첫째, 혼성곡이 이를 위해서 특별히 작곡된 경우 <첫 번째 명시된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로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한다. 둘째, 여러 작곡가들의 기존 발라드, 노래, 아리아 등으로 구성된 경우 <저작의 우선표제>만으로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 셋째, 혼성곡, 발라드 오페라 등에서 발췌한 편집물인 경우 <발췌된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사용한다. 넷째, 단일 혼성곡 등에서 발췌한 단일 발췌인 경우 <발췌곡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 + 발췌곡의 우선표제>를 전거형접근점으로 사용한다(RDA 6.28.1.3).

다. 안무동작을 위해 작곡된 저작

RDA 6.28.1.4에 따라 발레나 댄서마임 등의 안무를 위해 작곡된 음악저작의 경우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를 전거형접근점으로 사용한다(<표 2> 참조).

라. 개작 저작

개작은 새로운 저작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작자를 주된 저자로 보고 <개작자의 전거형접근점 + 개작의 우선표제>로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한다. 다만, 개작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동일 저작의 서로 다른 표현형으로 보아 편곡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RDA 6.28.1.5). <표 2>와 같이 하이든 주제에 따른 변주곡을 요하네스 브람스가 작곡하였는데 이는 개작된 작품이므로 작곡자를 브람스로 기술한다.

마. 새로운 텍스트와 표제로 변경된 오페라 및 기타 극저작

기존 음악저작에 텍스트, 구성, 기타 언어적 요소를 변경하였거나 이러한 텍스트 변경뿐만 아니라 표제도 변경한 경우 <원작곡가 + 원저작의 우선표제 + 괄호 안에 개작의 표제>로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한다(RDA 6.28.1.6). <표 2>와 같이 휘가로와 결혼을 국내에 맞게 텍스트와 제목을 변경한 경우 원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쓰고 괄호 안에 썬타는 박사장 길들이 기라는 변경한 표제를 추가한다. 이는 원저작의 전거형접근점에 괄호 안에 개작의 표제를 추가 기술하여 저작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표 2> 음악 저작 유형별 전거형접근점의 구성 및 사례

저작 유형	전거형접근점 구성	사례
가사, 대본, 텍스트 등이 있는 음악저작	작곡가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	100 ▼a나운규. ▼t아리랑
혼성곡, 발라드, 오페라 등	원곡	100 ▼aAmadei, Filippo. ▼tMuzio Scevola
	기존작곡집	130 ▼aThreepenny Opera
	발췌곡집	130 ▼aBeggar's wedding
	단일 발췌	100 ▼aHandel, George Frideric, ▼d1685-1759. ▼tMa come amar?
안무동작을 위해 작곡된 저작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	100 ▼a민소운. ▼t시집가는 날 (시집가는날 / 민소운 작곡; 제임스 전 연출; 서울발레시어터)
음악저작의 개작	개작자의 전거형접근점 + 개작의 우선표제	100 ▼aBrahms, Johannes, ▼d1833-1897. ▼tVariations on a theme by Joseph Hayden, ▼nop. 56
새로운 텍스트와 표제로 변형된 오페라 및 기타 극저작	원저작의 전거형접근점 + 괄호 안에 개작의 표제	100 ▼aMozart, Wolfgang. ▼tAmadeus. Figaro's wedding (썸타는 박사장 길들이기)
카덴차	카덴차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 + 카덴차의 우선표제	100 ▼aJoachim, Joseph, ▼d1831-1907. ▼tCadenza to Mozart's violin concerto in A, K. 219, 1st allegro aperto
연극 등을 위한 음악 및 부수음악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	100 ▼a홍성규. ▼t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OST 작곡: 홍성규)
		100 ▼aWilliams, John, ▼d1932-. ▼tStar wars (존윌리엄스가 작곡한 영화 스타워즈 음악)

* 출처: VIAF 예시를 중심으로 작성

바. 카덴차

카덴차는 악곡이나 악장의 마침 직전에 삽입하는 즉흥적인 기교적 독주로 연주자의 즉흥연주에 의지하였으나 후대에는 작곡자가 직접 작곡하기 시작하였다. 카덴차가 없는 악곡을 연주할 때는 다른 음악가가 별도로 작곡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카덴차는 원저작과 다른 저작으로 볼 수 있어 <카덴차 작곡가의 전거형 접근점 + 카덴차의 우선표제>를 전거형접근점으로 사용한다(RDA 6.28.1.7). <표 2>와 같이 바이올린 연주자 요세프 요하임은 카덴차를 많이 작곡하였고,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콘첼토에 대한 카덴차이다.

사. 연극 등을 위한 음악 및 부수음악(附隨音樂)

연극, 영화, 드라마 등을 위해 구성된 음악이나 음악이 주가 되지 않는 다른 것에 쓰이는 음악의 경우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를 전거형접근점으로 기술한다(RDA 6.28.1.8). <표 2>는 존윌리엄스가 작곡한 영화 스타워즈 영화음악이다.

3. 표현형 전거형접근점

편곡, 채보, 첨부된 반주, 소품, 성악보와 합창보, 번역 등 표현형의 유형에 따라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에 arranged, sketches, vocal scores, 번역된 언어 등의 표현형의 속성을 추가하여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한다.

가. 편곡, 채보

고전음악에서 하나의 연주매체용 음악을 다른 연주매체용으로 다시 쓴 편곡, 채보, 버전, 세팅 혹은 기존 음악저작의 간략 버전인 경우 <원본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 arranged>로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한다. <표 3>과 같이 안익태의 한국환상곡이 편곡된 경우 안익태로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하고 arranged를 추가한다.

대중음악의 편곡은 <원본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사용하지만, 악기용 대중음악이 성악이나 합창곡으로 편곡된 경우나 성악에서 악기용 대중음악으로 편곡된 경우에는 <원본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 arranged>로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한다(RDA 6.28.3.2).

나. 첨부된 반주

저작이나 저작의 부분에 악기 반주나 추가 부분이 첨부된 경우 <원본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사용한다(RDA 6.28.3.2). <표 3>과 같이 슈만의 피아노 반주가 추가된 바흐의 바이올린 독주소나타의 경우는 바흐의 독주 소나타로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

다. 소품

저작이나 저작의 부분이 한 작곡가의 소품(小品)으로 구성된 경우 <전집을 나타내는 전거형접근점 + Sketches>로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한다(RDA 6.28.3.4). <표 3>과 같이 홍난파의 동요 선집의 경우 sketches를 추가하여 소품을 나타낸다.

라. 성악보와 합창보

성악보 및 합창보는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 “Vocal score” 혹은 “Vocal scores” 혹은 “Chorus score” 혹은 “Chorus scores”>로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한다(RDA 6.28.3.5). <표 3>과 같이 현제명의 춘향전 성악보인 경우 Chorus score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현제명 춘향전의 녹음자료와 악보가 한 저작으로 집중되며, 표현형에서 악보와 연주음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마. 번역

성악저작(또는 성악저작의 부분)의 텍스트가 번역물인 경우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 언어명>으로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RDA 6.28.3.6). <표 3>과 같이 성악의 텍스트가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경우 언어를 추가하여 표현형을 식별한다.

<표 3> 표현형 유형별 전거형접근점의 구성 및 사례

표현형의 유형	전거형접근점 구성	사례
편곡, 채보	원본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 arranged	100 ▼a안익태. ▼t한국환상곡; ▼oarranged
첨부된 반주	원본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100 ▼aBach, Johann Sebastian, ▼d1685-1750. ▼tSonaten und Partiten, ▼mviolin, organ, ▼nBWV 1001-1006
소품	전집의 전거형접근점 + Sketches	100 ▼a홍난파, ▼d1898-1941. ▼t동요. ▼kselection (Sketches)
성악보와 합창보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 “Vocal score”, “Chorus score”중 선택	100 ▼a현제명, ▼d1902-1960. ▼t춘향전. ▼sChorus score
번역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 언어	100 ▼a김희갑. ▼t명성황후, ▼lEnglish

IV. 음악 저작 목록규칙 마련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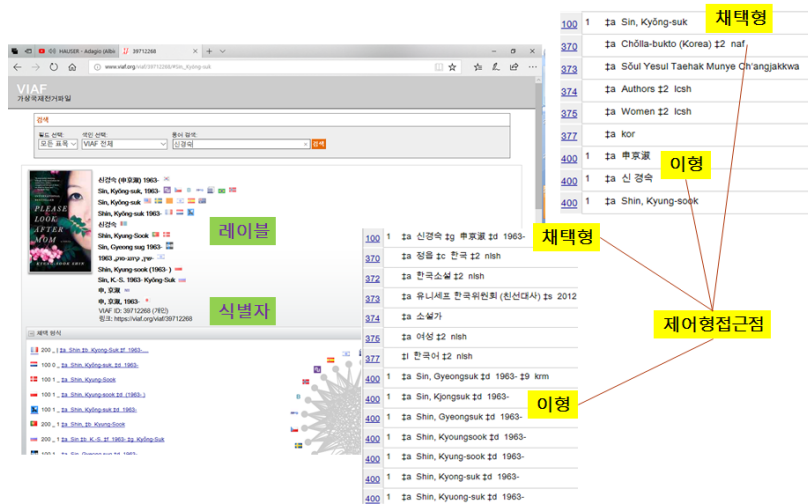
1. 음악 저작 전거형접근점 방향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 KCR4 목록규칙 개정이 진행중이며, 저작의 식별을 위한 ‘저작에 대한 전거형접근점’을 두는 것을(김정현 2013, 139) 기반으로 목록규칙이 개정되고 있으므로 음악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의 방향은 ICP 2016, LRM, VIAF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ICP 2016에서는 전거형접근점의 선정에서 원문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저작의 구현형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목록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저작이 창작되었을 때의 언어로 된 작곡가의 원표제를 음악저작의 우선표제로 선정한다. 즉, 저작이 구현된 자원(입수된 첫 번째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어로 된 표제로 목록이용자에게 적합하여 널리 인정되는 이름(예, 관용명 포함)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해당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목록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사용한다. 이 경우 원문의 언어와 문자에 해당하는 표제를 반드시 저작의 이형표제에 기술한다. 예를 들어, 서양 음악의 경우 영어, 독일어 등의 로마자 원표제는 우리나라 목록이용자에게 적합하므로 이를 우선표제로 사용한다. 다만, 아랍어와 같은 비로마자 로마자로 번자된 것을 우선표제로 사

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를 위해 번역된 저작의 경우 번역 표제를 이형에 반드시 기술하도록 하고, 전거형접근점 간의 데이터 통합을 위해 식별자를 기술하도록 한다.



<그림 2> 노멘중 하나를 채택형, 나머지를 이형으로 사용

※ 출처: VIAF(<http://www.viaf.org/>)

<그림 2>와 같이 전거형접근점은 LRM의 노멘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해당 국가에서는 여러 노멘 중 하나를 채택하여 전거형으로 기술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 개체인 신경숙이라는 레는 “신경숙” “Shin, Kyoung-sook” “申, 京淑” “Sin, Gyeong sug” “Sin, Kyŏng-suk” “VIAF ID: 39712268” “<http://viaf.org/viaf/39712268>”등의 노멘이 있으며, 해당하는 목록규칙에 따라 하나의 노멘을 전거형으로 선정하고, 다른 것을 이형으로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노멘은 주어진 체계 내에서 하나의 레와 연계되고 이러한 체계는 VIAF와 같은 공동전거파일에서 더욱 확장될 수 있다.

현재 국내 도서관에서 도서관별로 자체적인 전거형접근점 관련 규칙을 마련해 사용하고 있어 통일된 규칙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ICP 2016에 따라 한글이 아닌 원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도서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전거형 관련 규칙이 상이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통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VIAF와 같은 예그리케이터형 전거제어방식이 국내에 적합한 모델이 될 것이다. VIAF에서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다양한 전거형이 인정되고 있어(이미화 2012, 22) 전거형접근점 선정이 유연해 질 것이다. 국내에서도 VIAF와 같은 전거제어 방식이 도입된다면 국가 전체적인 전거형접근점 관련 목록규칙을 인정하되 해당 기관에서 이 규칙이 적합하지 않다면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음악 저작 유형별 전거형접근점 구성

음악 저작의 저작 및 표현형 전거형접근점의 구성은 저작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음악저작의 유형을 7가지로 구분한 RDA는 작곡자의 책임성 여부에 따라 원작곡가를 사용할 것인지 개작 작곡자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우선 RDA에서는 가사/대본/텍스트 등이 있는 음악저작, 안무동작을 위해 작곡된 저작, 연극 등을 위한 음악 및 부수음악은 해당 음악의 작곡가를 중심으로 <작곡가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로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하였다.

음악저작이 원저작에 비해 변경된 정도가 크면 변경한 작곡가가 전거형접근점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개작은 <개작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 + 개작의 우선표제>, 카텐차는 <카텐차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 + 카텐차의 우선표제>로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한다. 특이한 것은 새로운 텍스트와 표제로 변경된 오페라 및 기타 극저작은 <원저작의 전거형접근점 + (개작의 표제)>로 괄호 안에 개작의 표제를 추가해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하였다.

혼성곡의 경우는 여러 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거형접근점 구성이 조금 복잡하다. 특정 목적으로 작곡된 경우 <첫 번째 명시된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 기존 음악저작으로 구성된 경우는 <저작의 우선표제>만을 사용하고, 여러 곡에서 발췌하여 묶은 편집물의 경우는 <발췌된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사용하고, 단일 혼성곡에서의 단일 발췌는 <발췌곡의 작곡자 + 발췌곡의 우선표제>로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한다.

종합하면 음악저작은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과 저작의 우선표제로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한다. 다만 음악저작의 원작곡가의 책임사항이 높지 않은 개작이나 카텐차의 경우는 원작곡자보다는 개작 작곡가나 카텐차 작곡가를 기반으로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음악저작의 주된 책임 작곡자를 결정해야 하는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음악 중에서 클래식이나 대중음악 경우 RDA 규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전통음악의 경우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첫째, 전통음악에서는 작곡가와 연주자가 분리되지 않고, 기존 악곡의 변형인 곡이 많다. 예를 들어, 가야금 산조는 김창조, 한숙구, 박팔괘 등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한성기, 강태홍, 최옥삼 등에게 이어졌고 다시 김죽파, 원옥화, 김춘지, 성금련, 김병호, 서공철, 정남희, 김운덕 등에게 전승되었다. 오늘날까지 전하는 것은 김죽파류, 최옥삼류, 성금련류, 김병호류, 김운덕류, 강태홍류 등이다(김영운 2015, 269). 전통음악의 이러한 변형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곡은 변형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동일 저작내 표현형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저작으로 볼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예시

김죽파. 가야금 산조; 김죽파류
최옥삼. 가야금 산조; 최옥삼류

둘째, 조가 다른 경우 이를 다른 저작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평조회상은 영산회상을 낮은 조로 변주한 곡이고, 연주악기도 달라진다(김영운 2015, 182). 평조회상은 영산회상을 낮은 조로 연주하므로 다른 저작으로 보아야 하며 저작의 우선표제의 경우 영산회상에서 조를 다르게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평조회상을 우선표제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영산회상과 평조회상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고, 악기편성이나 조가 다르고 포함된 곡도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다른 저작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예시	
영산회상	거문고, 가양금, 양금, 장구, 해금, 대금, 세피리
평조회상	거문고, 가양금, 해금, 대금, 향피리, 아쟁, 소금, 장구, 좌고
우선표제	연주매체

3. 저작 및 표현형 속성 기술의 통일성

RDA에서 음악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은 연주매체 중심이 아니라 작곡유형을 중심으로 하며 연주매체, 숫자표시, 음조, 기타 정보로 구성된다. 따라서 작곡유형, 연주매체, 숫자표시, 음조, 기타 정보를 일관되게 기술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마련되어야 한다.

작곡유형의 경우 데이터 작성 기관이 우선하는 언어와 같은 계통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그 작곡유형명이 해당 언어에서 사용되는 경우, 데이터 작성 기관이 우선하는 언어

<표 4>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분류

항목	정의	전통음악 작곡유형	구분	예시
궁중음악	국가나 왕실의 공식 의전 음악	향악	관악기중심	정음, 동동
		당악	관악기중심	낙양춘, 보허자
		군대음악	관악기중심	대취타
풍류음악	지식인 사회의 음악애호가들에 의해 연주 감상된 음악	줄풍류	현악기중심	영산회상, 보허자의 변주곡
		가곡	성악곡	
민속음악	서민, 평민 계층의 생활 속에서 연주되던 축제나 일상음악	민요	성악곡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농악(사물)	타악기중심	배치기소리
예술음악	전문음악인들이 연주하던 공연용 음악이나 민간 의례의 부수음악	판소리	성악곡	춘향가, 심청가
		산조와 시나위	기악독주곡	
		잡가와 입창		육자배기, 공명가
종교음악	초월적인 존재를 위한 종교의식에서 연주되는 음악	무속음악(무가, 무악)		창부타령, 성주풀이
		불교음악	성악곡	법패, 회심곡, 영산재
		유교음악(종묘, 사직, 문묘 제례악)		보태평, 정대업
		기타 종교음악		

※ 출처: 김영운(2015) 바탕으로 재구성

로 작곡유형명의 형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용어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서양고전음악의 작곡유형은 국내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Sonata, Concerto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전통음악의 경우는 <표 4>와 같이 전통음악 분류체계에 따라 향악, 당악, 군대음악, 줄풍류, 가곡, 민요, 농악, 판소리, 산조, 시나위, 잡가, 입창, 무속음악, 불교음악, 유교음악 등의 작곡유형을 규정하고 이의 통제어휘를 마련해야 한다.

연주매체의 경우에는 데이터 작성 기관이 우선하는 언어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데이터 작성 기관이 우선하는 언어와 같은 계통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그 연주매체명이 해당 언어에서 사용되는 경우, 데이터 작성 기관이 우선하는 언어로 연주매체명의 형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용어가 필요하다. 서양 악기의 경우는 piano, violin 등의 표기를 사용하여 연주매체를 기술할 수 있지만, 국내 전통음악의 경우 악기에 대한 체계적인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통악기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향토악기, 불교의식악기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운 2015, 87-141). 세부적으로 <표 5>와 같이 현악기로 가야금, 거문고, 양금, 해금, 아쟁, 금, 슬, 관악기로 대금, 소금, 피리(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태평소, 단소, 생황, 나발, 나각, 소, 적, 훈, 지, 약, 당적, 통소, 초적, 타악기로 박, 방한, 편종, 편경, 장구, 소고, 징, 쟁과리, 북, 좌고, 용고, 자바라, 운라, 특중, 특경, 노고, 노도, 뇌고, 뇌도, 영고, 영도, 절고, 진고, 축, 어, 부, 향토악기로 호드기, 쌍피리, 고동, 사장구, 살장구, 울북, 설쇠, 물장구, 태왁, 허벅, 활방구, 못방구, 불교의식악기로 범종, 범고, 목어, 운판, 반자, 경쇠, 요령, 태징, 광쇠, 목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악기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의 통제어휘를 마련해야 한다.

숫자는 가능한 고유번호를 사용하고, 국내 전통음악에는 고유번호가 없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조는 으뜸음을 의미하며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서양음악의 조 이름은 C minor, D major 등과 같이 국내 이용자에게 적합하므로 이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 전통음악에서는 서양의 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첫째, 국내 전통음악의 음계는 5음음계, 7음음계, 12음음계 등으로 서양음악과 다르다. 둘째, 국내 전통음악에서 조의 의미

<표 5> 우리나라 전통악기의 분류

악기유형	연주매체
현악기	가야금, 거문고, 양금, 해금, 아쟁, 금, 슬
관악기	대금, 소금, 피리(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태평소, 단소, 생황, 나발, 나각, 소, 적, 훈, 지, 약, 당적, 통소, 초적
타악기	박, 방한, 편종, 편경, 장구, 소고, 징, 쟁과리, 북, 좌고, 용고, 자바라, 운라, 특중, 특경, 노고, 노도, 뇌고, 뇌도, 영고, 영도, 절고, 진고, 축, 어, 부
향토악기	호드기, 쌍피리, 고동, 사장구, 살장구, 울북, 설쇠, 물장구, 태왁, 허벅, 활방구, 못방구
불교의식악기	범종, 범고, 목어, 운판, 반자, 경쇠, 요령, 태징, 광쇠, 목탁

※ 출처: 김영운(2015, 90-141)

가 다르다. 현대 음악에서 조는 주음의 높낮이를 가리키는 키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조의 의미는 서양음악의 선법과 비슷하다. 향악에서는 평조와 계면조로 나뉘며 평조는 솔, 계면조는 라가 주음인 선법이다. 민요의 조도 지역마다 다르며 민요의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토리를 사용한다. 토리는 음계만이 아니라 음계를 구성하는 각 음의 기능이나 성질을 고려한 선법의 개념에 더하여 각 음의 요성이나 퇴성, 장식음이나 선율형 등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토리에는 진경토리, 신경토리, 반경토리, 수심가토리, 난봉가토리 등 다양하다. 판소리와 산조에 사용되는 조에는 계면조, 평조, 우조, 경조, 호걸조, 메나리제, 추천목, 석화제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된다(김영운 2015, 32-55). 따라서 우리나라 음악에서는 선법을 조(key)로 사용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음악 저작은 동일한 저작임에도 다양한 표제로 발행되고, 편곡 등으로 파생되어 저작 및 표현형을 중심으로 한 자료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표제를 중심으로 한 작곡 유형, 연주매체, 음조 등의 저작 및 표현형의 속성이 일관되게 기술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RDA 음악저작 및 표현형의 속성 및 전거형접근점 기술 규칙을 분석하고, VIAF 사례를 바탕으로 KCR4에서 음악 저작 및 표현형 집중을 위한 전거형접근점 규칙 제정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음악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의 방향을 VIAF와 같은 에그리케이터형의 전거형접근점 방식 적용을 제시하고, 원표제를 우선표제로 기록하되, 국내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적합한 언어나 문자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음악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은 작곡가의 전거형접근점과 저작의 우선표제로 구성하되, 원작곡가의 책임이 크지 않은 경우는 개작자 등의 전거형접근점으로 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통음악도 작곡자의 책임성을 중심으로 저작유형별 전거형접근점의 구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저작 및 표현형 속성 기술의 통일성을 위해 작곡유형, 연주매체, 음조 등을 일관되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내 전통음악에서는 작곡유형, 연주매체, 음조, 기타 정보를 통일성 있게 기술하기 위한 통제어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음악저작의 저작 및 표현형 집중을 위한 전거형접근점 기술 규칙 마련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음악 분야의 이용자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운. 2015. 『국악개론』. 파주: 음악세계
- 김정현. 2013.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123-143.
- 김현희, 유영준, 박서은. 2007. FRBR 모형의 KORMARC 데이터베이스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185-202.
- 도태현. 2012. RDA의 저작과 표현형의 접근점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27-48.
- 손정표. 2007. 한국 전통음악 녹음자료의 통일표제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425-454.
- 이미화. 2012. 대학도서관 전거제어 현황분석을 통한 전거제어 방안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5-26.
- 이미화. 2016. 저작 및 표현형 전거레코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71-94.
- 이미화, 노지현. 2016.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접근점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47-69.
- 이성숙, 이현주. 2013. 한국전통음악의 서지적 관계 특성에 따른 FRBR 모형 적용 방안. 『사회과학 연구』, 24(2): 399-421.
-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2003.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14.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2014 revision*. NY: ALA, CILIP, CLA.
- IFLA. 1998.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김태수 역.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IFLA Cataloguing Section and IFLA Meetings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2016.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https://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icp/icp_2016-en.pdf> [cited 2018. 1. 14].
- Riva, P., P. L. Boeuf, & M. Žumer. 2017. *Library Reference Model: A Conceptual model for bibliographic information*. <https://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frbr-rm/ifla-lrm-august-2017_rev201712.pdf> [cited 2018. 1. 14].
- Kincy, C. P. & S. S. Layne. 2014. *Making the move to RDA*. Lanham: Rowman & Littlefield.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Young-woon. 2015. *Introduction to Korea Traditional Music*. Paju: Eumaksekye
- Kim, Jeong-Hyen. 2013.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Korean Cataloguing Rul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123-143.
- Kim, Hyun-Hee, Yeong-Jun Yoo, & Suh-Eun Park. 2007.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FRBR Model Adaptation to KORMARC Database: Focusing on Music Materi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185-202.
- Doh, Tae-Hyeon. 2012. "A Study on Instructions for Access Points Representing Works and Expressions in RD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27-48.
- Sohn, Jung-Pyo. 2007.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Uniform Title for Sound Recording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3): 425-454.
- Lee, Mihwa. 2012. "A Study on Direction of Authority Control by Surveying the Authority Control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5-26.
- Lee, Mihwa. 2016.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Work and Expression Authority Recor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3): 71-94.
- Lee, Mihwa & Jee-Hyun Rho. 2016.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Authorized Access Points in KCR4."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47-69.
- Lee, Sung-Sook & Hyun-Ju Lee. 2013. "A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FRBR Model According to th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of Korean Classical Music." *Journal of Social Science*, 24(2): 399-421.
- Korean Library Association. Cataloging Committee. 2003. *Korean Cataloging Rules*. 4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